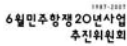




민주화 20년, 문화 20년

“상상변주곡”

1회 4월 26일 (목)	민주화 20년, 문화 20년 - 몇 가지 성찰과 비판 발제 : 도정일 (문학평론가, 문화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)
2회 5월 3일 (목)	우리에게 ‘우리’ 는 무엇인가 발제 : 진중권 (문화평론가, 중앙대 겸임교수)
3회 5월 10일 (목)	진보문화운동에 대한 비판적 시선 발제 : 복거일 (소설가, 미래문화포럼 대표)
4회 5월 14일 (월)	6월민주항쟁 이후 한국 사회의 내면 풍경 발제 : 임상수 (영화감독, <그때 그 사람들>, <오래된 정원> 외) 토론 : 김봉석 (대중문화평론가), 강유정 (영화평론가)
5회 5월 17일 (목)	지난 20년의 ‘소설’ 을 다시 읽는다 발제 : 심진경 (문학평론가, 「문예중앙」 편집위원)
6회 5월 23일 (수)	진보 운동과 민족문화 운동의 새로운 모색 발제 : 김명인 (문학평론가, 인하대 교수, 「황해문화」 주간)
7회 5월 31일 (목)	세계화 시대에 구상하는 진보 운동의 문화 전략 발제 : 조정환 (문학평론가)
8회 6월 7일 (목)	민주화 20년, 철학적 사유의 변화와 모색 발제 : 이진경 (철학자, 서울산업대 교수)
9회 6월 8일 (금)	발제자 8인의 종합 원탁토론

주최 및 주관 : 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

공동 기획 및 진행 : 문화단체  푸른나무집
www.pujib.com

4회 : 고백을 통한 자기 복원 없이 그저 달려 나가기만 하는 사회

임상수 (영화감독, <그때 그 사람들>, <오래된 정원> 외)

1987 6

군대를 갔다 온 후 복학한 게 1986 .
그러니까 대학에서의 마지막 2 .
그렇지만 마치 조승희 만큼이나 외톨이였고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던 나는 그저 방관자이자 구경꾼이었다.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이한열의 시신을 지키는 사수조에 참여하라는 전화도 무시했고, , 재미 한 마리 없는 도서관에 혼자 있었다. 12 |에 올리는 택시들의 경적소리와 그에 호응하는 베타이족들의 모습은 내 가슴을 들뜨게 했다.
항쟁의 끄트머리엔 나를 거리로 초대한 여자 친구들 덕에 그들 속에서 구경을 했다. ‘ 런 게 혁명이구나!’ 숨 막힐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지만 뭔가 과장되어 있다는 씁쓸한 느낌도 있었다. ? 또 어느 혁명엔들 지도부의 대중 선동 기획이 없었겠는가?

그때 피가 솟구치는 희열을 느끼며 거리에 있었던, 그리고 그걸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을 많은 사람들, ?

영화 ‘ ’ : 언급함을 용서하시라

25 ! 전 그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내면에 여전히 숨어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. 그리하여 그 때 그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 안의 그 어떤 모습을 함께 장사 지내 하늘나라로 날려 보내고 싶었다. ‘ ’ . 그때 영화를 격렬하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임상수를 격렬하게 비난했던 사람들의 입장은 타당하다. 왜냐하면 그들은 영화 속에서 박정희에 대한 조롱 따위에 앞서 자신들의 적나라한 치부를 보았기 때문이다. , ‘ ’ : 지금 여기 우리들에 관한 영화였다.

우리는 얼마나 변했는가?

제도적으로는 그럴듯한 민주적인 사회 체계를 갖추었지만 여전히 별로 변하지 못한 우리들의

정신 상황은 어떤 일인가?

박정희 쿠데타 이후 시작되어 87 6

겉모습으로의 민주적인 사회 체계를 꼽는다면 우린 그 피를 낭비한 것이 아닐까?

피의 대가로 좀 더 귀중한 것,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내면화될 수 있는 어떤 가치체계는 불가능했을까?

그렇다면 그 피의 값을 충분히 우려먹지 못한 것이 아닌가?

박완서의 단편 소설 「 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 」

보고 싶지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우리들의 과거.

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라며 그저 다들 입 다물고 있는 형국.

6

김근태의 □□남영동□□, □□ □□, □□ □□, □□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□□, □□ □□ □□, < >, < > .

제대로 된 척결, , 새로운 가치의 내면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일단 그 복원 자체에 실패했기 때문 아닌가?

‘.....’

2002

6

6

또는 민주화 자체에서 생성되지는 않는 것 같다. 오히려 민주화 과정이란 오랫동안 계속 되어온 위의 굴절된 풍토를 청산함에 있는지도 모르겠다.

즉, , , , 전두환 시절 거치면서 계속되었던 왜곡된 가치체계의 청산이어야 말로 우리 민주화 시대를 사는 세대의 임무다.

노무현 정권이 끝나가는 마당에 생각해 본다. ?

생각해 보면 저런 목표란 한낱 정권 따위가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.

하지만 이걸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희망이란 없는 것 아닐까?

이걸 이루지 못한다면 소위 ‘6 ’ 2002 ! 월드컵

열기와 얼마나 다른가?

□□할머니가 있는 풍경□□

□□할머니가 있는 풍경□□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다. 4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간 저자 이혜리가 1912년 평양에서 태어나 일제 식민지 시대와 한국 전쟁을 겪어낸 자기 외할머니의 개인사를 그린 책이다. 할머니에게 마이크를 달아주고 그 옛날 그 끔찍했던 일들을 울며불며 풀어낸다. 할머니는 빨개진 눈과 코를 훔치며 한탄하고 저주하고 기막혀하고 뉘우치며 얘기를 들려주고, . 내게 그건 일종의 곳으로 보였다. 하고 나면 그 어쩔 수 없었던 상처들과 죄의식에서 해방되어 흡가분한 한 숨을 토하고 코맹맹이 웃음을 다시 웃을 수 있는, 그리하여 몽매한 야수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자신과 타인들을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곳 말이다. 저자와 같은 또래인 나로서는 내가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와 그런 식의 얘기를 나누는 걸 상상할 수 없다. 가부장적 사회의 남성에게는 어울리는 일이 아니니까.

30 4!의 어린 자식을 데리고 걸어서 한 겨울에 평양서 대동강과 임진강을 건너 서울로 간다. 다시 가축 운반용 열차보다 못한 고물 기차를 여러 날 타고 부산에 도착한다. . 헤어진 가족을 찾는 쪽지로 도배가 된 부산 창진 교회. 하릴없는 영양실조의 수많은 피난민 남성들이 이제 막 도착한 그 다섯 명의 모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. 두고 온 어머니와 처자에 대한 회한과 죄의식을 숨긴 공허한 슬픈 눈빛들. . 한 번도

그 속을 털어놓은 적이 없는, , 그리하여 여전히 죄의식과 상처에 시달려 속이 시커멓게 타고 일그러진, . 책을 읽으면서 난 문득 내가 한국전쟁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다는 걸 느꼈다. 2차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의 수난들에 관한 그 많은 영화나 책들에 비추어 봐서도 우리의 가족들이 피눈물로 겪은 20!기 가장 추악한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침묵해오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. ‘ . ’ 라는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참혹하다. 하지만 그건 우리 현대사를 통해 살아남은 모든 사람의 심정이기도 하다. 그 참혹한 심정을 오롯이 고백해내는 일은 괴로운 노릇일 수밖에 없고 계속 지연되어 왔다. . 하지만 우리의 내면 깊숙이 묻어 둔 그 참혹한 심정은 어떤가. ‘ , 나만 정직하면 뭐해? ’ 는 심정으로 면면히 대물림되고 있지 않은가? 21 , . 우리는 여전히 식민지 주민의 비참한 심정으로,

*

*

*

* ‘